

초기 예수회의 교육과 마테오 리치의 선교활동

심 종 혁 S.J.

서강대, 영성신학

1. 들어가는 말
2. 마테오 리치와 초기 예수회원들의 교육
3. 마테오 리치의 중국 선교 활동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마테오 리치의 초기 중국 선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들 중 하나가 그가 저술한 『교우론』(交友論, 1595)이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의 관리들이나 학자들과 ‘중국식’으로 교분 관계를 맺고 유지한 것이었다. 예수회의 기본 카리스마가 ‘동료애’(companionship)임을 상기할 때, 리치가 받은 교육과 그의 선교활동에서 보여준 우정을 맺을 수 있는 자질과 현실 인식 능력은 결코 예수회의 카리스마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리치의 중국 선교활동의 정신과 맥락은 그가 예수회원으로서 받은 교육, 즉 영적, 인간적, 학문적, 그리고 사도적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가 받았을 초기 예수회의 양성, 즉 수련자로서 받았을 영적 교육과 콜레지오 로마노(Collegio

Romano)에서 받은 인문학과 철학 및 천문학 교육, 그리고 인도의 고아에서 받은 신학 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예수회의 『회헌』¹⁾과 「교육지침서」(*Ratio Studiorum*)²⁾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들이 실제로 그가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의 언어와 문화 및 고전들을 공부하며 자신이 받아온 예수회원으로서의 교육에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실천하고 수행한 선교활동들, 즉 교우관계를 통한 우정선교, 서양의 과학적 지식과 그 응용을 통한 과학선교, 그리고 중국어로 출판한 천주실의(天主實義)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을 통한 저술선교 등에 어떻게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겠다.

2. 마테오 리치와 초기 예수회원들의 교육

마테오 리치는 1552년 10월 6일 이탈리아의 동북부 마체라타(Macerata)에서 태어났다. 이 해는 바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중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꿈을 접고 상추안(上川)에서 세상을 떠난 해였다. 하비에르 성인의 못다 이룬 꿈은 훗날 마테오 리치에 의해 이루어 졌다.

리치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예수회 학교에 입학했고, 이 학교에서 자신이 존경하고 잘 따르던 세란젤리(Nicolò Serangeli) 선생이 예수회에 입회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예수회원이 되고자 하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³⁾ 그의 부친 조반니 바티스타는 리치가 훗날 교황령 관리가 되기를 바랐고 또 당시 마체라타의 예수회대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1568년 16세의 리치를 (오늘날 로마대학교의 전신인) 라 사피엔자(La Sapienza)에 유학보

1) 『예수회 회헌과 보충규범』(서울: 예수회 한국 관구, 2008). 이하 『회헌』으로 약칭표기 한다.

2) “The Jesuit Ratio Studiorum of 1599”, *The Jesuit Code of Liberal Education: Development and Scope of the Ratio Studiorum*, trans. Allen P. Farrell, S.J. (Milwaukee: The Bruce Publishing, 1938).

3) 훗날 1599년의 편지와 1608년 북경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 등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큰 영향을 주었던 Serangeli 신부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Cf. Gianni Criveller, “The Background of Matteo Ricci: The Shaping of His Intellectual and Scientific Endowment”, *Portrait of a Jesuit: Matteo Ricci* (Macau: Macau Ricci Institute, 2010), 17.

냈다.⁴⁾ 이 학교에서 리치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1568-1571) 리치는 학생 ‘성모회’(Sodality of the Blessed Virgin)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오늘날 Christian Life Community(CLC)라 불리는 평신도 사도직 공동체의 전신인 이 동아리는 예수회원에 의해 처음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조직되어, 당시 여러 학교로 확산된 신심활동단체였다. 예수회 사제들에게 고백성사와 영적지도를 받은 리치는 세상에서 봉사하는 길보다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길이 자신이 따라야 하는 길임을 깨달아, 3년 과정의 법학 공부를 접고 예수회에 입회하기로 결정했다.

로마 퀴리날레 언덕에 있는 성안드레아 수련소에 1571년 8월 15일, 새로 입회하는 19세의 리치를 맞이한 이는 바로 한 달간 수련장을 대신하여 임시로 와 있었던 알레산드로 발리냐노(Alessandro Valignano) 신부였다. 훗날 중국 선교의 기둥인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회의 수련자들은 수도회의 기본 정신과 사도적 목적을 습득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 연학은 잠시 미루어 두고 우선 기도생활과 수련소 내부의 잡다한 일들을 통해 순명과 겸손을 배워야 한다. 리치가 보낸 수련소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예수회의 『회헌』에 묘사된 주요 실습을 살펴보면 그가 어떠한 훈련을 받았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⁵⁾ 수련자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주요 실습을 하게 된다. 첫째 실습은 약 1개월 동안 영신수련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고, 과거의 생활 전체를 면밀히 반성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묵상하고 충고백을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과 승천의 장면들과 신비를 관상하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기도하고 수련하는 교육이다. 둘째 실습은 약 1개월 정도 병원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

4) 이 학교는 1303년 교황 베네딕도 8세에 의해 세워진 대학으로서 학문의 중심으로서 특히 약학과 해부학으로 유명했고 역사학이나 인문학, 그리고 고고학 등에서도 명성을 지닌 학교였다.

5) 『회헌』 [64-71].

곳에서 숙식을 하며 관계자들에게 받는 지시에 따라 환자들을 돌본다. 이를 통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 안에서 섬기고자, 세상과 세상의 호사 그리고 허영에서 완전히 멀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겸손함에 이르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셋째 실습은 대략 1개월 기간 동안 불편한 숙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금전을 소지하지 않고 때때로 집집마다 구걸을 하며 주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순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는 금전과 다른 피조물에 둘 수도 있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참된 믿음과 열렬한 사랑으로 자신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완전한 신뢰를 두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이다. 장상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동안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병원에서 지내거나, 순례로 2개월을 더 보낼 수도 있다. 넷째 실습은 수련소에 들어온 후, 온전한 열성과 정성으로 여러 가지 고되고 자질구레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일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다섯째 실습은 어린이들과 무학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지니기 위한 교육이다. 여섯째 실습은 수련자가 앞의 여러 실습에서 검증되고 감화력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설교를 하거나 고백성사를 듣거나 혹은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사도적 자질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예수회의 수련자들은 수도자로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할 마음가짐과 겸손한 태도를 습득하여, 오랜 기간의 연학기 이후에 있는 사도적 활동을 위한 학문적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수련기 교육을 마치고 예수회원으로서 첫 서원을 한 후 리치는 1572년 9월 17일 콜레지오 로마노에 입학했다. 자신의 삶을 미래의 사도적 활동에 투신할 젊은 예수회원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유럽의 예수회원들은 잘 교육받은 교양인들로서 왕족이나 귀족 혹은 고관들의 고백사제나 조언자로서 활동하면서, 특히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예수회의 교육기관은 고등학교나 대학 혹은 대학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16세기 말까지 이미 유럽 전역에 500개 이상의 예수회 관련 학교나 기숙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에서는 이나시오 로올라 자신이 초안한 교육 과정을 따랐는데, 문법, 시, 수사학, 논리학, 자연철학, 윤리철학, 형이상학, 수학 등 학문의 제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교육을 제공했다. 이나시오와 그 동료 및 후계자들이 계승하여 발전시킨 교육이념과 과정은 예수회의 「교육지침서」(Ratio Studiorum)라는 문헌으로 출판되어 유럽의 향후 교육 풍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⁶⁾

콜레지오 로마노는 예수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모든 예수회 교육기관의 모범이었다. 이나시오 로올라 자신에 의해서 1551년에 세워진 이 학교는 무료로 운영된 학교로서 마테오 리치가 재학하던 시절에 이미 유럽 각지에서 모여 든 천여 명의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그 중 130명 정도가 예수회 신학생들이었다. 예수회 신학생들의 교육과정은 2년의 수사학, 3년의 철학, 그리고 3년의 신학 연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2년 동안 리치는 교회 공식 언어이자 강의 언어인 라틴어 뿐 아니라 희랍어와 히브리어를 배웠다. 교수들은 고전의 재발견이 유행하던 당시의 학문적 풍조에서 영향을 받아 주로 희랍고전이나 라틴고전을 공부하도록 인도했다. 물론 교회의 권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삭제되어 읽혀졌다.⁷⁾ 리치는 라틴고전 중에서는 마르티알(Martial), 호라티우스(Horatius), 오비디우스(Ovidius), 베르길리우스(Vergilius),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 등을 읽었

6) 르네상스의 시대정신과 유럽의 여러 지역의 예수회 교육기관에서 축적해온 여러 해 동안의 교육경험들이 반영된 이 「교육지침서」는 파리대학교의 교육방법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수준의 예수회 교육기관에 적합하도록 적용시킨 「교육지침서」로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예수회 교육자 및 교육 행정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이 「교육지침서」는 예수회원들의 교육뿐 아니라 일반인의 교육에도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기에 기존의 교육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인문학을 교육의 기초로 삼아 문학, 역사, 연극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성직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즉 신학과 철학을 여기에 통합시켰다. 즉 르네상스의 인문학 전통과 중세의 스콜라 학문을 통합시킨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Vincent J. Duminuco (ed.), *The Jesuit Ratio Studiorum: 400th Anniversary Perspective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0).

7) 『회헌』 [468].

고, 희랍고전에서는 호메로스(Homeros), 헤시오도스(Hesiodos), 투키디데스(Tuchydides), 그리고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등을 읽었다.⁸⁾ 특히 라틴 고전에서는 최고라고 불리는 키케로의 문체를 따랐는데, 훗날 리치가 중국에서 저술한 『교우론』과 『서국기법』(西國記法, 1596)은 이 당시에 습득하고 공부한 고전들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3년의 철학 과정에서 리치는 논리학,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세네카(Seneca)와 에픽테투스(Epictetus)를 비롯한 여러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을 공부했다.⁹⁾ 그리고 토론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교수들과 동료 학생들 앞에서 논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해야만 했다.¹⁰⁾ 이러한 토론의 목적은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하여’ 지적능력을 보다 더 배양하고, 과목들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었다. 리치와 같은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특별반에 초대되어 학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교실에서의 학습과 더불어 학회 활동은 정신과 영혼의 끊임없는 단련 과정이기도 했다.¹¹⁾ 철학기 마지막 학년에 리치는 (훗날 예수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성인으로서 교회학자로 선포될) 젊은 신학교수인 로베르토 벨라르미노(Roberto Bellarmino, 1542- 1621)에 의해 시작된 고급과목인 ‘논쟁’(Controversies)을 수강하기도 했다.

예수회의 교육과정에서 수학적 지식은 신학 연학기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과목이었다.¹²⁾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수학적 법칙에

8) “Rules of the Teacher of Rhetoric”, *Ratio Studiorum*.

9) “Rules of the Professor of Philosophy”, *Ratio Studiorum*.

10) Cf. 『회현』 [378-379]. 토론은 철학과 스콜라신학을 공부하는 데에 특히 유익하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학생들은 학교의 토론회나 학회에 참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연학원 내에서는 매주 한번 지정한 날에 철학과 스콜라신학 과정에서 각각 한 사람이 원장의 지명을 받아 논문을 발표한 다음, 연학생들은 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이 발표에 대하여 반론과 해명을 전개하며 토론을 벌인다. 셋째, 연학원 내에서는 매일 한 시간 동안 둘째와 같은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 또한 인문학을 공부하는 연학생들도 매주 한번 날을 지정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여야 한다.

11) “Rules of the Academy”, *Ratio Studiorum*.

12) “Rules of the Professor of Mathematics”, *Ratio Studiorum*.

따라 세상을 기획하시고 창조하셨기에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탐구이기도 하고, 자연현상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창조 업적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경축하는 일의 일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회의 교육과정에 대수학과 기하학을 포함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인 예수회원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Christophorus Clavius, 1537-1612)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다.¹³⁾ 클라비우스는 젊은 예수회원들이 과학에 별로 흥미를 갖지 않고 또 동료 교수들이 수학 교육이 사제나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분명 철학과 수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수학 교육이 다른 순수학문이나 응용학문에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회의 명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학이 자연과학의 기초라면, 천문학은 그 정점이다. 클라비우스는 콜레지오 로마노의 옥상에서 늘 하늘을 관측했다. 1572년 카시오페아 근처에서 18개월 동안 머문 새로운 별자리를 발견하기도 했다. 리치는 이러한 클라비우스의 견해에 동조했고, 그의 과목들을 성공적으로 수강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다.

16세기의 천문학은 크게 2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관찰과 계산에 의해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천문학과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움직임을 인간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점성학으로 나뉜다. 당시에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이 두 분야 모두 강의되었으나, 예수회 대학에서 후자는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미래가 별들의 움직임에 쓰여 있다는 믿음은 자유의지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치가 콜레지오 로마노에

13) 클라비우스는 1563년부터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친 천문학자로서, 젊은 리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는 기원전 3세기의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희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여 주석을 달아 1574년에 출판하였기에, ‘16세기의 유클리드’라 불리었다. 그는 천문학에 관한 저술도 다수 출판했다. 거의 50여년을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가르치면서 클라비우스는 콜레지오 로마노 뿐 아니라 예수회 대학들에서 사용할 과학 교재들을 연속적으로 출판했다. 이러한 과학 교육의 필요성은 예수회 대학에서 뿐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자각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피사 대학에서 공부한 갈릴레오의 강의 노트는 콜레지오 로마노의 수학 강의록을 따라 갔음을 보여준다.

서 공부했고 훗날 중국에서 그가 가르친 우주관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주관으로서, 2세기의 클라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Klaudios Ptolemaios)의 천동설과 훗날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의에 의해 보충 설명된 그런 우주관이었다. 이에 따르면 우주는 유한한 공간으로서 그 중심에 부동의 지구가 놓여져 있고, 그 주위를 도는 8개의 천체에 의해 하늘이 구성되어 있다. 별들 너머에는 신의 영역인 부동의 최고천(Empyrean)이 있다. 리치가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공부하던 무렵은 이미 태양을 행성계의 중심에 놓아 훗날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의 씨앗이 발아되는 계기가 되는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Coelestium*, 1543)가 발표된 지 이미 30여년이 지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읽혀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이 책이 금지되지는 않은 상태였기에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70여년 후인 1616년에야 공식적으로 금서가 된다. 더욱이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한 갈릴레오는 클라비우스의 가까운 친구였다. 리치는 이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는데 그 때는 이미 리치가 세상을 떠난 후였다.¹⁴⁾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은 그 응용이 즉각 달력의 계산에 미친다. 리치가 과학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을 전제한다면 당시 클라비우스에게 부여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의 계산과 제작에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그 오차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5년부터 사용해 온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을 개정하도록 클라비우스를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은 1582년에 비로소 발표되었기에 이미 리치가 동양으로 파견되어 떠나간 후이지만, 그가 1589년에 그레고리력 중국판을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달력의 제작 초기에 이루어진 주요 계산 작업에 직접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⁵⁾ 리치에

14) Criveller, "The Background of Matteo Ricci", *Portrait of a Jesuit*, 25-27.

15) Ibid., 28.

의해 제작된 중국판 그레고리력은 중국 달력에 태양력의 24절기를 15일 간격으로 배열한 것이다. 중국에서 달력을 만든다는 것은 오직 황제의 명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리치는 그 달력을 1605년에야 비로소 출판할 수 있었다.

리치는 지리학과 지도제작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자신이 콜레지오 로마노의 학생시절에 이 기술을 온전히 연마했다.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사용한 교과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지리학』으로서 1세기 전에 히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었다. 1570년대의 학자들은 지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지도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도 제작 기법을 훌륭히 습득한 리치는 훗날 중국에서 크나큰 업적을 남기게 된다.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로마의 스승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새로 관찰한 여러 지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유럽에서는 마테오 리치,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아담 샬(Adma Schall),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 미카엘 보임(Michael Boym), 페르디난도 베르비스트(Ferdinando Verbiest) 등의 중국 선교사들이 제공해주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계속 제작했다. 리치는 자오칭(肇慶)에서 1584년, 난징(南京)에서 1600년, 베이징(北京)에서 1602, 1603, 1608, 1609년에 각각 지도를 제작했다.¹⁶⁾

콜레지오 로마노의 교육에는 다양한 기계들을 손수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공학기술과 관련된 교육도 포함된다. 리치는 지구의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했다. 그는 고대의 천구의의 사용법을 익혔기에 지평선 위에 떠있는 별들의 각도를 측정하여 그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에도 익숙했다. 그는 클라비우스에게서 해시계의 원리와 그 제작법을 배웠으며, 자명종 시계의 원리를 터득하여 시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익혔다. 이러한 이론적이며 동시에 실제적인 지식들이 리치로 하여금 선교 활동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16) Criveller, "The Background of Matteo Ricci", *Portrait of a Jesuit*, 29.

했다. 그는 지도뿐 아니라 시계, 지구의, 혼천의, 해시계, 천구의 등의 기계들을 제작하여 서구 기술 문명을 중국에 전해주었다.

리치가 철학 3년 과정을 마칠 무렵인 1576년 인도 선교구의 총책임자였던 포르투갈인 마르티노 다 실바(Martino da Silva) 신부가 로마에 왔다. 이를 계기로 신학생들 사이에 선교사로 파견되고자 하는 열정이 불처럼 타올랐고, 리치 역시 선교사로 지원했다. 이 시대에 제출된 인도 선교 지원서(Litterae Indipetae)는 예수회의 독특한 문헌군을 형성했다. 여기에서 ‘인도’란 광활한 선교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서쪽으로는 미주 지역과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인도로 파견된다는 것은 선교사로 외지에 파견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수회가 임시로 폐쇄되는 1773년까지 이 지원서는 무려 2만 4천여 통에 이른다. 이런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교사로 선발되어 파견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선발 과정은 장상들에 의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선교사로서 외지에 파견되는 것은 엄청난 모험과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으므로, 대단히 높은 지성적, 감성적, 인간적 자질이 요구되었다.

1577년 다 실바 신부는 최종적으로 선발된 지원자들의 명단을 예수회 총장 에베라드 메르쿠리안(Everard Mercurian) 신부에게 제출했고, 그 명단에 철학 과정을 이제 막 마친 마테오 리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축복을 받은 후, 1577년 5월 8일 일행은 출발하여 제노아를 거쳐 리스본에 도착했다. 리치는 코임브라 대학에서 신학과정 1년을 마치고, 포르투갈어를 습득했다. 1578년 3월 24일 출발하여 6개월의 항해 끝에 1579년 9월 13일 인도의 고아(Goa)에 도착했다. 리치는 건강이 악화되어 코친(Cochin)으로 요양을 떠나는 1580년 초까지 그곳에서 라틴어와 히랍어를 가르쳤고, 1580년 7월 25일 사제서품을 받은 후에, 1580년 9월 고아로 돌아왔다. 그리고 신학 과정을 그곳에서 마무리했다. 리치가 인도에서 보낸 시간은 모두 4년이었는데,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배운 과정이 주로 인문학과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이었다면, 인도의 고아에서는 주로 신학이 중심이었다.

그 당시 리치가 보낸 편지(1581.11.25)를 통해 그가 지닌 공명정대한 선교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고아의 신학교는 원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인도의 방인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것인데 포르투갈 정부에서 신학교 행정에까지 간섭하여 창립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었다. 즉 현지인 가운데 사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철학이나 교리 및 신학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서양인 중심의 교육 방침에 대해 리치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처음 2년 동안은 오직 인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년째는 사제로 서품된 후여서 관구장께서는 다시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뵈분께 제안한 것처럼 인도에 왔으니 학문 이외의 일을 저에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철학 강의를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결정된 사항 하나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것은 원주민, 즉 인도 주민의 자녀들은 철학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불리 문자 등을 배우게 되면 교만해져서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말단 자리에 있고 싶어하지 않으며, ... 철학이나 신학을 잘 모르는 이 지방에 와 있는 서양인들이 모두 바보 취급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비단 이곳 인도의 학교뿐 아니라 유럽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이유로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주민들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백인들 사이에서 큰 신용을 얻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므로 ... 만일 앞서의 조치가 시행되면,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 사이에 무지를 조장하는 일이 됩니다. 성직자는 장래의 사제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 비그리스도교 신자 사이에 섞여야 할 사제가 주장을 하거나 질문에 답할 수도 없고, 자신의 신앙이나 타인의 신앙을 굳게 하지 위한 논의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¹⁷⁾

17) 히라카와 스케히로,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노영희 옮김 (서울: 동아아시아, 2002), 70-71에서 재인용.

예수회의 동방선교 총 책임자인 알레산드로 발리나노 신부는 미켈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신부의 청을 받아들여 마테오 리치를 마카오로 불렀고, 그곳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 입국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리치는 1582년 8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하여 중국 입국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리치는 마카오에서 약 1년간 중국어를 배우며 머물렀고, 그 기간에 발리나노 신부가 조직한 중국청년 신심단체(Confraternity of the Holy Name Jesus)의 지도신부로 일했다. 1583년 9월 10일, 리치와 루지에리 신부는 자오칭의 서쪽 강변에 정착하면서 길고도 긴 복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3. 마테오 리치의 중국 선교 활동

리치는 난창(南昌)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이와 같은 명성을 얻게 된 이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예수회 아쿠아비바(Claudio Aquaviva) 총장에게 보고하고 있다(1595.11.4.).¹⁸⁾ 첫째는 ‘먼 외국에서 온 사람을 그곳에서 볼 수 없었다는 것, 게다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서양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둘째는 리치가 대단한 기억술의 주인공으로서 ‘위치매김 기억법(memorial locale)’이라 부르는 기법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었다.¹⁹⁾ 셋째는 자연과학 지식에 의한 것이었다. 16세기 말에는 수학의 뒷받침이 있었던 서양의 자연과학이 아무래도 동양의 자연철학보다는 우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는, 서양의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프리즘과 유화가 중국인의 호기심을 끌었다. 리치는 언어에 특별한 소질을 지녔고,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였으며, 대화를 통해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녔고, 천문학이나 지도제작, 그리고 수학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개방적 태도는 중국 문화를 폭넓게 습득하게 해주었

18) 스케히로, 『마테오 리치』, 252-253 참고.

19) 리치는 이 기억술이 일종의 재주이므로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배우러 왔다. 리치는 나중에 『서국기법』(西國記法)이라는 한문 소책자에서 자신의 기억술을 밝히고 있다. 참고: 조너선 D. 스펜스,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주원준 옮김 (서울: 이산, 1999), 21-25; 스케히로, 『마테오 리치』, 253.

고, 다양한 영역의 저술 활동 뿐 아니라 폭넓은 교우관계를 통해 인맥을 넓혀, 선교활동에 있어서 적응정책을 잘 실천할 수 있었다. 그의 선교 활동을 우정선교, 저술선교, 과학선교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1 교우관계를 통한 우정선교 활동

루지에리 신부와 리치 신부는 발리나노 신부의 명령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의 문자와 언어를 배우고 중국의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는 모범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중국인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소매가 길고 옷자락이 처진 수수한 승려의 복장을 했다. 이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원인의 하나였지만, 이들은 승복이 가톨릭 성직자의 복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10여년 후에 리치는 승복을 버리고 유학자의 복장으로 갈아입는다.²⁰⁾ 유복을 착용한 것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끌어 올려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리치 일행은 처음에 종교인으로서의 동일한 가치를 승려로부터 구해 자신들을 천축(인도)의 승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유학자가 관리로 있는 중국 사회의 상층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정부 관리들은 불교와 승려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고, 현세를 긍정하는 유교를 받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시험

20) 예수회 총장 아쿠아비바 앞으로 보낸 1595년 11월 4일자 편지에 리치는 복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이 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무언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위엄 있는 복장을 하고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샤오저우(韶州)를 떠나기 전 평상복 외에 방문복으로 입을 비단옷 한 벌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방문복은 중국 문관 등 주요 인물이 입는 짙은 보랏빛 비단옷으로 폭이 넓게 열린 소매가 달려있습니다. 발 둘레에는 밝은 하늘 색 비단이 두 마디 정도의 띠 모양으로 붙어 있으며, 소매 깃과 목깃에도 그와 마찬가지로의 비단이 붙어 있습니다. 허리띠도 역시 옷에 매달려 있는데, 그 끝에 두 개의 끈이 땅 까지 늘어져 있어 그 모양이 이탈리아의 미망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발도 비단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약간의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는 사제가 쓰는 모자와 같습니다. 교우를 처음 뵈을 때라든가 장엄한 축제일에 혹은 관리를 방문할 때 중국인은 이런 복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방문 받은 사람도 이와 비슷한, 신분에 알맞은 복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 옷을 입은 덕분에 저는 대단한 위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샤오저우에 있는 카타네오 신부도 제 명령에 따라 나중에 이런 옷을 입게 되었는데 덕분에 지방의 명사들과 사귀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케히로, 『마테오 리치』, 242에서 재인용.

을 거쳐 온 그들에게는 인문학의 기초가 있었다. 그 내용은 리치도 열심히 배운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요체로 하는 것으로, 그는 사서오경에서 주장하는 도덕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사서오경을 배우고 유학자를 사귀는 것이 리치에게는 유쾌한 일이었다. 유교에 대한 적극적 접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보다는 유교가 그리스도교의 주장에 가깝다는 주장을 낳았으며, 다시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유교의 ‘하늘’(天)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神)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세계지도를 제외하고서는 『교우론』이 리치가 처음으로 중국어로 출판한 책이다. 1595년 말에 출판된 이 책은 서양의 고대 명사들이 언급한 우정에 관한 76개의 금언을 담고 있다.²¹⁾ 훗날 증보된 책(1601)에는 100개의 금언이 실려 있다. 리치는 고대 서양의 현자들의 책에서 우정에 대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중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관습을 가미하고 적응하여 문장을 새로 썼다. 이 책에 배열된 우정에 관한 금언들은 어떤 특정한 순서로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금언들은 우정과 관련하여 참다운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에게 영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서양에서는 세네카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자의 논어와 비슷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를 통해 리치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우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배움을 사랑하고 진리를 열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정이란 중국의 유학 전통에서도 가장 골격이 되는 오륜의 하나로서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동질성 혹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의지적 참여를 통한 관계에 주요점을 두는 가치인 것이다. 우정을 통해 관습적인 사회관계의 범주를 넘어 더 폭넓은 관계의 망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르네상스 교육을 받은 리치로서는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가 다르지만, 옛 것을 숭상하고 고전에 담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여

21) 서문에서 리치는 이 책의 기원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난창에 머물던 왕족 건안왕(建安王)의 요청에 따라 문장공부 겸 연습 삼아 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비들의 찬사를 받아 심지어 그 필사본이 중국 여러 도시로 전파되기도 했다.

재발견하려는 이러한 풍토에 많은 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리치와 그의 중국 친구들은 삶의 대한 인문주의적 접근을 공유하는 바로 이 우정을 통해 두 세계가 만날 수 있다는 비전을 나눈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만남에서 자기수양의 중요성, 철학과 학문에 대한 애정, 논리보다는 윤리적 실천에 대한 관심, 공동의 지성적 관심과 우정에 근거한 현실 세계에의 참여,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과 실습의 중요성 등이 공유될 수 있었다. 시대의 두 거대한 문명, 즉 중국 청대의 문화와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가 바로 이 우정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리치의 『교우론』은 폭력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우정을 통한 평화의 문을 통해 중국 사회와 문화에 진입하고자 했던 일종의 마테오 리치 프로젝트의 설계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²²⁾ 난창에서 출판된 이 책이 바로 리치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들어서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이다. 리치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다: “저는 이제 이 열려진 문을 여러분에게 남겨놓습니다. 엄청난 위험과 수고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훌륭한 장점도 동시에 있지요.”²³⁾ 리치는 우정을 통해 이 거대한 문을 연 것이고, 그의 후배들이 그 문을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일에 꼭 성공적이지만은 못했다.

3.2 저술선교 활동

리치는 사서오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보았기에, 그리스도교와 회랍-로마 문화의 관계가 그리스도교와 유학사상 사이의 관계에 비교할 수 있었다. 유학사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 리치에게 주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바로 선진유학과 당시의 신유학 사이에 있는 많은 차이를 간파하는 것이었다. 리치는 고대 선현들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22) Criveller, “Matteo Ricci’s Ascent To Beijing”, *Portrait of a Jesuit*, 47.

23) Ibid. *Fonti Ricciane*, i, CXXXI.

고 보아, 고대의 문헌에서 언급되는 상제(上帝), 혹은 하늘(天)은 결코 신유학의 내재적인 비인격적 주재원리가 아니라 초월적인 인격신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리치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을 상제나 천(天), 혹은 천주(天主)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²⁴⁾

마테오 리치는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본격적인 한문 저작을 출간한 사람이다. 그는 선교사로서 『천주실의』라는 중요한 저작을 저술했다. 리치의 선배로서 먼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루지에리 신부는 자오칭에서 1584년에 비록 소책자이지만 『천주실록』(天主實錄)이라는 교리문답서를 펴낸 바 있다. 그 무렵의 예수회 선교사는 불교를 중국 종교로 중시하고 있었으므로 『천주실록』에는 특별한 의식 없이 불교 용어가 사용되었고 유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의 지배 계급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관리로 구성되고 있었고 그 바탕이 되는 사상은 유교였다. 유교와 타협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교를 중국에 퍼뜨리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루지에리 신부는 1588년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리치는 계속 중국에 머물며 사서오경을 배웠다. 그리고 유교와 타협하여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선교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시각에서 『천주실록』을 다시 읽어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중국인이 ‘서축국천주실록’이나 ‘천축국승집’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천주실록』을 불교의 새로운 종파 사람들이 교의를 보급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매우 실질적인 인물

24) ‘천주(天主)라는 말의 성립에 관해 리치는 ‘보고서’ 제2권 3장에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루지에리와 파지오가 일전에 자오칭에 머물 무렵, 틴 니코라는 선량한 청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신부들이 머물던 천녕사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고 신부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으므로, 루지에리는 다시 자오칭으로 올 기회가 있으면 틴을 그리스도교 신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루지에리는 그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었고, 자오칭을 떠날 때 틴에게 미사를 위한 제단을 맡겼다. 그리고 몇 달 후, 루지에리가 리치와 함께 자오칭에 돌아와 틴을 만나러 갔을 때, 틴은 자기 집의 조그만 방 하나에 그 제단을 모셔놓고 있었다. 그곳에는 우상 따위는 일체 장식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벽 중앙에 한 장의 판자가 놓여 있었으며, 그 위에 커다랗게 ‘天主’라는 한자 두 글자가 굵게 쓰여져 있던 것이다.... 이 감동적인 장면의 목격자였던 리치는 ‘Deus = 天主’라는 번역어의 채택에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다.” 스케히로, 『마테오 리치』, 115에서 인용.

이었던 리치는 선교활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책상머리에서 미리 계획하여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 해에 걸친 시행착오와 도전들, 중국인 친구들과 지인들의 조언, 그리고 자신 스스로 중국의 문화와 고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얻은 실천적 지식,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차츰 선교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갔다. 이런 면에서 그는 진정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였으며 실용주의적 선구자였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향해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지녔다. 그래서 리치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천주실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서양 선비와 중국 선비의 문답 형식을 빌려 『천주실의』를 쓰기 시작했다. 초판은 1603년에 나왔으며,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다. 『천주실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모든 것을 체계 있게 다룬 책은 아니다. 입교 희망자나 세례를 받은 교우를 위한 교리서라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저술인데 중국선비와 서양 선비 사이에 대화체로 묻고 답변하는 호교론적인 교리문답서이다.

이처럼 리치의 선교활동의 성공을 가져온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서적 출판이었다. 로마의 총원에 보낸 편지에 리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이겠습니까만, 중국에서도 말보다도 책을 통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사려됩니다.”²⁵⁾ 리치는 홀로 혹은 중국인 지인들과 공저로 수많은 서적을 중국어로 출판했고, 예수회 본부와 유럽의 지인들에게 보낸 약 54통의 편지를 남겼다. 오늘날 그것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새로 중국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이 읽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국의 고전 4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를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25) Criveller, “Matteo Ricci’s Ascent To Beijing”, *Portrait of a Jesuit*, 47에서 재인용: “Ricci to Acquaviva, Beijing, 8 March 1608, in Ricci”, *Lettere*, 470.

3.3 과학선교 활동

리치는 중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지닌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동아시아의 종교사뿐 아니라 과학사와 지리학사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명말 중국 지식인들에게 세계 지도와 지구의의를 보여주었다. 위도와 경도, 남극과 북극, 날짜변경선과 적도 등은 중국인들에게 모두 새로운 지식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치는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당시에는 최첨단이라 할 수 있는 과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종교적 회심을 위하여 과학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비난은 적어도 리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학은 도구 이상을 넘어 인본주의 정신과 세상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예수회의 교육 이념의 한 부분이었다. 발리나노나 리치 그리고 롬바르도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 도입된 과학선교의 방법은 적어도 그 시대의 예수회원들 사이에서는 전혀 의심을 사거나 의혹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선교방식에 대하여 비교적 후대에 계속해서 토론의 여지는 있었으나, 예수회원들은 그 선배들이 도입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예수회에서는 정책적으로 자연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중국에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리치는 이러한 자연과학적 지식에 뛰어난 후배들의 도움을 얻어 해시계, 천지의, 지구의, 상한의, 기한의 등을 제작해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 리치의 과학선교 활동은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수학, 천문학, 달력제작, 지리학, 지도제작, 약학, 물리학, 건축학, 언어학, 철학, 윤리학, 예술, 음악, 그리고 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서양의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들을 중국에 전했다. 리치를 단순히 서양 문화와 과학을 중국에 전한 인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사였던 것이다. 서양의 과학지식을 전파하면서 리치와 그 동료들은 동시에 서양문화의 가치를 드러내주었으며, 동시에 선교사로서 그들 자신이 지닌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리적 자연세계

의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은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하여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나가는 말

리치는 중국선교의 선구자로서, 그가 세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수많은 박해와 좌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리치 자신이 말리나노 신부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렀지만, 사실은 리치야말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것이다. 리치의 선교 여정이 성공의 연속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선비들과의 존경어린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정부의 많은 관리들에게서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황제의 호의까지 받았다. 결국, 리치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가톨릭공동체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리치 역시도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리치의 중국선교에 대한 접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우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우정을 통한 폭넓은 교우관계는 그가 중요하게 여겨온 인문주의적 가치로서 유럽에서 뿐 아니라 중국에서의 리치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가 남긴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관계를 유지 발전시켰다. 1610년 5월 11일 그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7세에 세상을 떠난 이유는 자신이 방문하거나 또는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친구들이나 방문객들을 접대하면서 과로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수많은 선비(literati)들이 과거시험을 치기 위해 북경에 모여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어로 훌륭한 책들을 출판하여 유명인사가 된 마테오 리치를 만나기 위해 설새 없이 그를 방문했던 것이다. 현대의 어느 예수회원 중국학자가 일컬었던 것처럼, 마테오 리치는 ‘우정의 순교자’였다.

참고문헌

-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송영배의 공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_____. 『교우론: 스물다섯마디 잠언; 기인십편』. 송영배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빈센트 크로닌. 『서방에서 온 현자. 마테오 리치의 생애와 중국 선교』. 이기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9.
- 서양자. 『16세기 동양선교와 마테오 리치 신부』.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0.
- 『예수회 회헌과 보충규범』. 예수회한국관구 역. 서울: 예수회 한국 관구, 2008.
- 조너선 D. 스펜스.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 주원준 옮김. 서울: 이산, 1999.
- 히라카와 스케히로. 『마테오 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노영희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02.
- Cronin, Vincent. *The Wise Man From the West. Mateo Ricci and his mission to China*. London: Fount Paperbacks, 1984.
- Criveller, Gianni. “The Background of Matteo Ricci: The Shaping of His Intellectual and Scientific Endowment”, *Portrait of a Jesuit: Matteo Ricci*. Macau: Macau Ricci Institute, 2010.
- _____. “Matteo Ricci’s Ascent To Beijing”, *Portrait of a Jesuit: Matteo Ricci*. Macau: Macau Ricci Institute, 2010.
- Duminuco, Vincent J. ed. *The Jesuit Ratio Studiorum: 400th Anniversary Perspective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0.
- Ricci, Matteo S.J. *The True Meaning of The Lord of Heaven: T'ien-chu shih-i*. Trans. Douglas Lancashire and Peter Hu Kuo-chen, S.J. Ed. Edward J. Malatesta, S.J. Hongkong: Ricci Institute, 1985.
- “The Jesuit Ratio Studiorum of 1599”, *The Jesuit Code of Liberal Education: Development and Scope of the Ratio Studiorum*. Trans. Allen P. Farrell, S.J. Milwaukee: The Bruce Publishing, 1938.
- Spence, Jonathan D. *The Memory Palace of Mateo Ricci*. New York: Elisabeth Sifton Books, 1983.

초기 예수회의 교육과 마테오 리치의 선교활동

심 중 혁 S.J.

마테오 리치의 중국 선교활동의 정신과 원리는 그가 예수회원으로서 받은 교육, 즉 영적, 인간적, 학문적, 그리고 사도적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마테오 리치가 받았을 초기 예수회의 양성, 즉 수련자로서 받았을 영성 교육과 콜레지오 로마노에서 인문학과 철학, 그리고 인도의 고아에서 받은 신학 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예수회의 『회헌』(*Constitutiones*)과 「교육지침서」(*Ratio Studiorum*)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들이 그가 중국에 들어가 중국의 언어와 문화 및 고전들을 공부하여 그것들을 자신이 받아온 예수회원으로서의 교육에 통합하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이 실천하고 실행한 선교활동들, 즉 교우관계를 통한 선교활동, 서양의 과학적 지식과 그 응용을 통한 선교활동, 그리고 중국어로 출판한 『천주실의』를 비롯한 저술을 통한 선교활동 등에 어떻게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주제어: 마테오 리치, 예수회 중국 선교, 예수회의 초기 교육 과정,
예수회 교육지침서

Formation of Early Jesuits and Matteo Ricci's Missionary Activities

Sim, Jong Hyeok, S.J.

The spirit and principles of Matteo Ricci's missionary activities in China should not be studied in isolation from the education, spiritual as well as intellectual influences he received as a young Jesuit. Surely his spiritual, academic and apostolic formation was fundamentally rooted in the Jesuit formation process. The present study reviews the spiritual and apostolic formation he received as a Jesuit novice, prescribed in the Jesuit *Constitutions*, the intellectual formation he received at the Roman College and theological education at the Jesuit seminary at Goa, India, prescribed in the *Ratio Studiorum*. Having a perspective from this review of the formation process of early Jesuits, we pay attention to understand how these Jesuit spirit and principles were implemented in Ricci's missionary works: (1) his dedication to understand and learn the Chinese language, cultural traditions and classics, (2) his faithful and constant works to develop a mutual and supportive relationship with a wide range of people of all strata, (3) his missionary works through publishing books of Christian thoughts in Chinese, especially the *True Meaning of the Lord of Heaven*, and (4) his activities of introducing western sciences. In all these

works and life of Matteo Ricci the Ignatian spirituality is manifested and implemented.

Key Words: Matteo Ricci, Jesuit China Mission, Formation of Early Jesuits, Jesuit
Ratio Studiorum

논문 접수일: 2010년 9월 26일

논문 수정일: 2011년 5월 9일

논문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3일
